

“지난 100회는 뚜벅 걸음, 다음 100회는 비전 플러스”

(사)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걷기 100회 기념 세미나

노원기 이사장, 조직체계·광역 둘레길 청사진 제시

2017년 4명서 출발…“순수한 열정·자발성 원동력”

“순수한 열정과 자발성으로 이룬 지난 100회의 성과 위에 지속 가능한 조직 체계와 광역적 비전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노원기 (사)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이사장은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본사 1층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걷기 100회 기념 세미나’에서 ‘빛고을산들길의 회고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이사장은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의 시작을 되돌아보며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이 조성한 빛고을산들길에는 걷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2017년 10월22일 4명이 함께 걸으며 첫발을 내디뎠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4일 제2회 모임에는 20명이 참여해 모임 결성에 대한 논의를 즉석에서 진행했고, 이것이 현재 모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됐다”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답사를 이어가고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정관에 따른 입원 체계를 확립하고 대외활동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걷기를 멈추지 않았다.

노 이사장은 “2020년 8월 코로나19로 행사가 연기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폭설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참가 인원도 30명 안팎으로 줄어 모임 활동이 위축됐다”며 “하지만 행사 형식을 바꾸며 상황에 맞춰 걸음을 이어가 ‘행사가 열리지 않은 달은 없다’는 약속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이사장은 “예산도 인력도 경제력도 없는 순수 민간 자원봉사 조직이 8년 가까이 월례 모임을 중단 없이 이어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드문 기록”이라며 “단 한 해도 적자 없이 회비와 자체 수입만으로 조직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회비에 의존하는 구조는 ‘다음 100회를 위한 과제’와 직접 맞닿아 있다”며 재정 다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간 차원의 광역 둘레길 청사진을 먼저 제시할 적기”라며 “100회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타 지역 벤치마킹과 함께 조직·재정·콘텐츠·안전관리 등의 과제를 냉정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걷기 100회 기념 세미나’에서 노원기 (사)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이사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승배 광남일보 사장 등 참석 내빈 및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단체회원 유치와 청년·가족을 대상으로 한 패밀리 코스(5km) 운영, SNS 챌린지 등을 통한 정회원 확대를 제안했다.

노 이사장은 “지난 100회는 걸음이었고 다음 100회는 비전”이라며 “순수한 열정과 자발성으로 이룬 지난 100회 위에 지속 가능한 조직 체계와 광역적 비전을 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노원기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이사장, 이승배 광남일보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경과보고, 축사, 발제·토론,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축전에서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걷기 100회 기념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100회가 되도록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무엇보다 큰 부담 없이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다”며 “100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길을 함께

걸은 노원기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승배 광남일보 사장은 “오늘 광남일보에서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걷기 100회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2018년 광남일보와 업무협약을 맺은 광주 대표 트레킹 모임인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은 그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월 걷기행사를 한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광주문화재단 통합 합의 “흡수통합 아닌 상생 원칙”

주사무소 무안·존속법인 광주문화재단

고용·근로조건 등 정관·직제 공동 마련

전남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양 재단 통합과 관련해 주요 사항에 합의하고, 통합문화재단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양 재단은 이번 합의를 통해 통합이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기관이 그동안 축적해 온 조직·인력·사업과 강점을 계승해 새로운 통합문화재단을 함께 만들어 가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주요 합의사항에 따르면 존속법인인 광주문화재단으로 하고, 통합문화재단의 주사무소는 전남문화재단이 소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에 두기로 했다.

주사무소는 통합문화재단의 법적 소재지이자 대표이사 의상시 근무처가 된다. 이곳에는 경영전략·평가·성과관리, 조직·인사·노무, 예산·회계·결산·계약, 이사회 운영, 대외협력 등 경영·행정 전반의 기능을 배치해 재단 운영을 총괄하도록 했다.

직원 고용과 근로조건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



전남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양 재단 통합과 관련해 주요 사항에 합의하고, 통합문화재단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9월 30일 통합문화재단 합의를 체결 모습.

다. 양 기관은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통합을 이유로 신분·보수·인사·노무 등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처우를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또 종전 양 재단의 제도와 직원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합의사항을 반영한 통합문화재단의 정관과 조직, 직제, 관련 제규정을 양측 합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통합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의 문화적 상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 재단은 “이번 합의는 양 기관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조직과 인력, 사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 간 균형과 상생을 바탕으로 통합문화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준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통합문화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태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조선간호대, 다문화가족 건강관리 ‘호응’

혈압·혈당·체온 측정 등 활동…학생 현장 실무·봉사 경험도

조선간호대학교가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의 건강관리를 돕고 간호학생들의 현장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조선간호대학교는 지난 9월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주교좌성당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 다문화가족 약 600명이 참여했다.

조선간호대 학생과 교직원 16명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체온 등을 측정하며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특히 학생들은 다문화가족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기반 간호 실무를 경험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채민정 조선간호대 교수는 “학생들이 수년간 지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



그램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간호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선간호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건강향상과 학생들의 현장 실무역량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조선간호대학교는 2027년 조선대학교와 통합을 앞두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문화전당재단·사조푸드스트·굿에코랩

소외 이웃에 ‘선한울림 푸드박스’ 전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전시 ‘식객: 맛의 뒤편’에 담긴 음식의 연대와 온기라는 메시지를 지역사회 나눔으로 확장했다.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조푸드스트, 사단법인 굿에코랩과 소외 이웃을 위한 ‘선한울림 푸드박스’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기관과 식품기업이 협력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열고 있는 전시 ‘식객: 맛의 뒤편’의 핵심 메시지만 ‘음식을 통한 연대와 온기’를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3개 기관은 광주 지역 자영업자의 정성이 담긴 푸드박스 150인분을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전당재단과 사조푸드스트는 푸드박스 제작과 물품을 후원했다. 굿에코랩은 프로젝트 기획과 참여



자영업자들의 홍보 영상 제작을 도왔다.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은 지원 대상자 선정과 현장 배분을 맡아 민관 협력형 사회공헌 모델의 의미를 더했다.

김명규 사장은 “사조푸드스트, 굿에코랩과 함께 전시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온기로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문화와 기업, 지역 소상공인이 어우러지는 상생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태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LG화학·상의, ‘K-뉴딜 아카데미’로 여수 청년 육성

AI·데이터·생산·품질·환경안전

200명 대상 12주 400시간 교육

LG화학 여수공장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여수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나섰다.

LG화학 여수공장은 대한상의와 함께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렛츠 그로우 위드 LG화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의 하나로, 기업이 산업과 직무에 맞는 교육과 현장 멘토링 등을 제공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G그룹은 올해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전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LG화학은 오산과 여수에서 총 200명을 대상으로 각각 12주간 4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여수 과정에는 1·2차에 걸쳐 최대 100명의 청년이 참여한다. 교육생들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생산·품질·공무·환경안전·물류·



LG화학 여수공장은 대한상의와 함께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렛츠 그로우 위드 LG화학’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LG화학

구매 등 주요 직무의 실무교육을 받는다.

생산·품질·환경안전·설비·계전·물류·구매 등 각 분야의 현직 전문가들이 산업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생들에게 전달한다.

여수상공회의소는 교육 수료생들이 지역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은 “이번 교육에서 쌓은 경험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져 청년들이 여수에서 배우

고 일하며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K-뉴딜 아카데미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과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며 “여수 공장 구성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청년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현장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swg3318@